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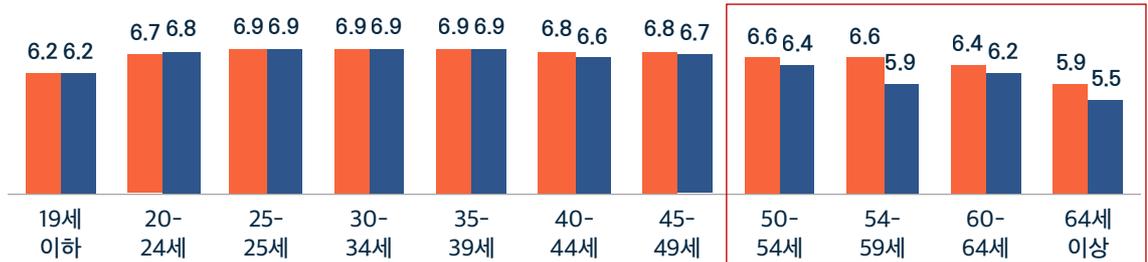


서울시 1인 가구, '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'

-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행복도를 조사하였는데, '1인 가구' 행복도를 다인 가구주와 연령별로 비교했을 때 다인 가구주에 비해 40세 이상 연령 층에서 1인 가구의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
- 특히 50대 후반 이후 행복도의 낙폭은 주목할 지점임
→ 교회 내 이들 연령층에 대한 세심한 돌봄이 필요해 보임

[그림] 연령에 따른 행복도 비교(다인 가구주 vs 1인 가구, 10점 만점)

(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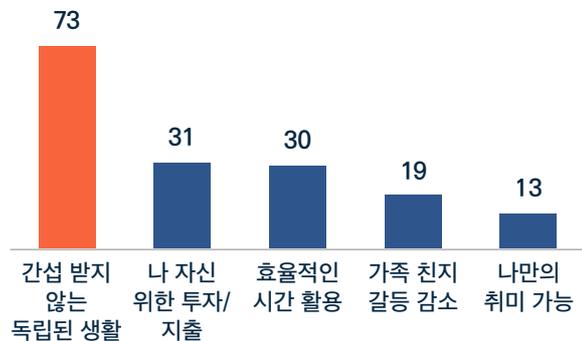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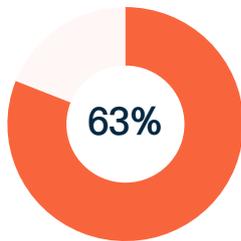
*자료 출처 : 서울시, 보도자료 '서울 인구는 감소해도 1인 가구는 33.9%...40년 만에 16배 증가, 2020.11.25.(2019 서울서베이, 서울시)
** 10점 만점 기준

● 서울시 1인 가구 63%, '1인 가구로 계속 남고 싶어!'

- 서울시에 거주하는 '1인 가구'의 계속 희망을 조사한 결과, '1인 가구'의 63%가 '1인 가구로 계속 남고 싶다'고 응답함
- '1인 가구'로 사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'간섭받지 않는 독립된 생활'이 73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'나 자신 위한 투자/지출' 31%, '효율적인 시간 활용' 30% 등의 순으로 응답함

[그림] 1인 가구의 계속 희망율 ('1인 가구로 계속 남고 싶다'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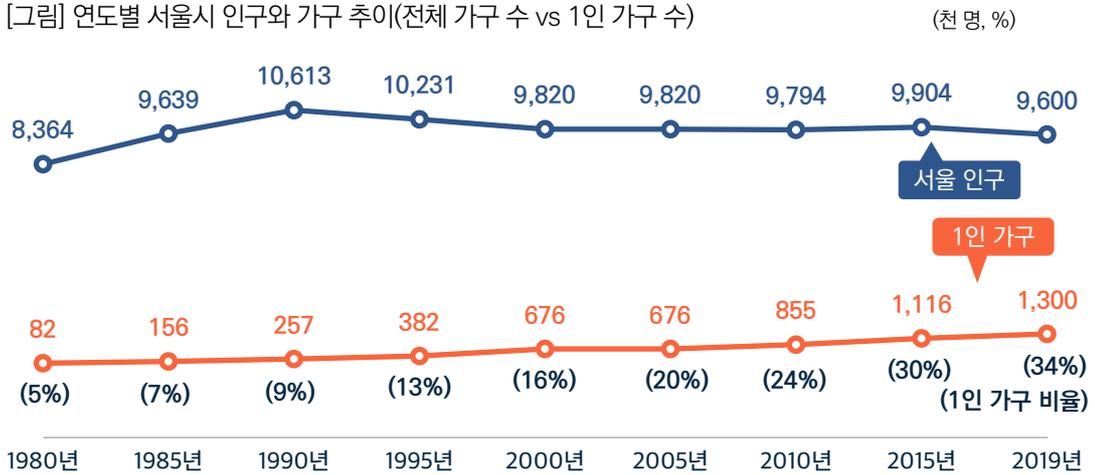
[그림] 1인 가구 만족 요소(복수 응답, 상위 5위) (%)



*자료 출처 : 서울시, '서울시민 온라인 조사' 2020.11.25.(서울 거주 만 18-65세(고교생 제외), 1인 가구 500명 2인 가구 이상 500명, 2020년 10.16-10.21)
(서울시, 보도자료 '서울 인구는 감소해도 1인 가구는 33.9%...40년 만에 16배 증가, 2020.11.25.)

● 서울시 3가구 중 1가구, '1인 가구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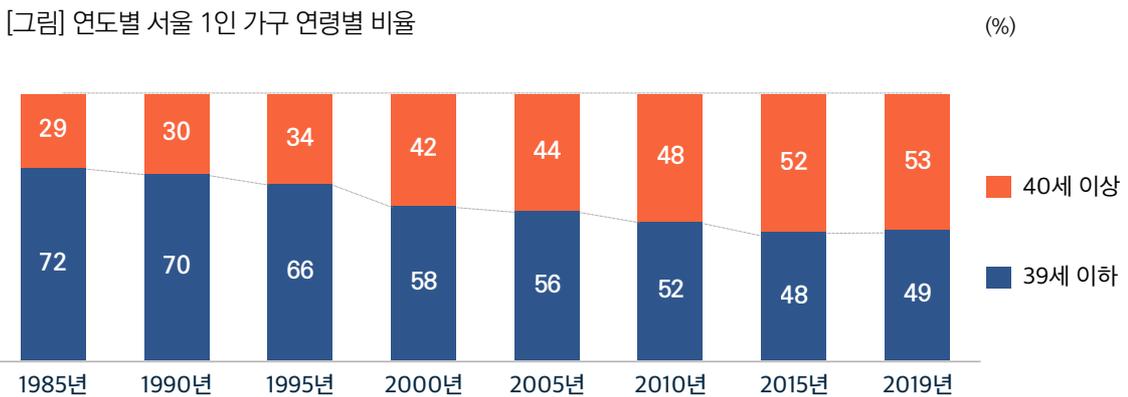
- 2019년 서울시에 거주하는 '1인 가구'는 130만 가구로 조사되었는데, 1980년 8.2만 가구에서 40년 만에 약 16배 증가하였고, 이는 전체 서울 380만 가구의 34%를 차지함
-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지만 서울의 '1인 가구'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



*자료 출처 : 서울시, 보도자료 '서울 인구는 감소해도 1인 가구는 33.9%...40년 만에 16배 증가', 2020.11.25.(인구주택총조사, 통계청)

● 2019년 서울에 사는 연령별 1인 가구 형태, 40세 이상에서 53%를 차지!

- 서울에 거주하는 '1인 가구'의 연령별 비율에 대해서는 도시화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(20~39세)가 유입되던 1994년 이전 '1인 가구'는 39세 이하에서 70%를 차지하였는데, 2015년 이후에는 '40대 이상'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함
-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, 만혼/비혼 등이 중장년층 '1인 가구' 증가에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음



*자료 출처 : 서울시, 보도자료 '서울 인구는 감소해도 1인 가구는 33.9%...40년 만에 16배 증가', 2020.11.25.(인구주택총조사, 통계청)